

- 親睦 · 福利增進
- 相扶相助
- 放送文化暢達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방송공사 사우회 / 발행인 서병주 / 편집인 한중광 /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709 / 우110-310 / 전화 (02) 733-2189, 732-8159/ 팩스 (02) 3210-1449 / www.kbsau.or.kr

# 사우회, 연구위한 공간 확대

## 鄭사장 "사우회 지원 아끼지 않을터" 徐회장 "공간 확보는 발전의 기틀"



현판식의 서병주회장과 정연주사장

한국방송사우회는 창립 이래 최대의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 회원의 연구 및 친목·복지 증진 활동을 폭 넓게 추진할

수 있는 도약기반을 구축했다. 사우회는 5월10일 낮5시 KBS 연구동 사무실 입주식을 갖고 이날부터 활용하기 시작

했으며, 현재 사용중인 경운동 사무실도 같은 건물에서 8평이 큰 709호실 (33평)로 6월 중에 이전한다.

서병주 사우회장, 이사 및 집행간부들과 정연주 사장, 안동수 부사장을 비롯한 주요 본부장 및 관계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KBS 연구동 입주식에서 정연주 KBS사장은 "사우회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회장은 "사무실 공간 확보는 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연구동 사무실은 'KBS사우회 세미나실' (Tel: 781-8362, Fax: 781-8269)로 명명했으며 연구활동 및 각종 회의용 만남의 장소 등으로 활용키로 했다. 그리고 경운동 사무실은 사무공간과 사우활동 공간으로 2분하여 활용폭을 넓혀가기로 했다.

# 이사회, 부산지부장 승인 회원증 갱신 계획도



부산지부장 구연도

사우회는 5월10일 KBS 연구동 사우회 세미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수운회관 사무

실 확장이전 계획을 승인하고 회원증을 갱신하여 발급하지는 않을 의결했다.

그리고 이사회는 부산지부 김덕조 지부장의 후임으로 구연도 사우를 임명 승인했다.

# 박현태고문, 백련사 주지 취임

KBS사우회 고문이고 사장을 역임한 차錫兌 사우가 태고종 白蓮寺 주지스님이 되었다.

법명이 志淵인 스님의 백련사는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읍 월산리 (전화 031-559-4801) 모란공원내에 새로 세워진 사찰로 지난 5월16일 개원식 및 주지 임명식이 있었다.

차志淵스님은 지난해 10월 순천 仙巖寺에서 수계(受戒)를 받아 스님이 되었다.

지연스님은 서울법대를 나

와 한국일보, 대한일보 정치부장, 서울경제신문 편집국장을 거쳐 민정당 전국구 국회의원을 지냈다.

또 문화공보부 차관과 KBS 사장을 역임했으며, 수원대학 법정대학장, 부산 동명정보대학 총장 등 언론계 정치, 학계를 두루 거쳤다.

이날 백련사 개원식에는 서병주 회장과 강병우 김은구 김성배 박춘병 차명희 사우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서 축하해 줬다.

## 회비내신분

- 고재록 문명웅 고세혁 서진교 정삼균 김월화 김정규
- 조남민 황봉구 지종학 배학철 김우철 임응식 박세호
- 이 승 오현정 이운재 정창기 강종열 김정태 권중훈
- 장태환 최종호 김정웅 김영희 이상성 이용수 오철환
- 김병원 백승대 정상현 박종흠 김종대 오영근 손춘식
- 최동호 유라문 김계섭 이준선 김세권 조성환 황성용
- 김성배 김재규 손동진 전의섭 김기환 김영소 김영균
- 홍청일 이범기 우제탁 김수부 배석진 허만채 박기의
- 류재남 류기현 이원세 유원길 황용선 김태홍 이철균
- 김용규 여영환 손진윤 박창연 김병천 김 영 김상수
- 선주엽 이운섭 이인상 윤세병 자유길 진동열 최승민
- 허남철 허필갑 권유호 박인재 이공수 김동원 권의철
- 강장남 이진선 노재준 공창진 김영택 김영태 흥태희

· 회비납부 일자순 : 회비 내신분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 차례 바둑대회 성료

사우회 바둑분과위는 5월18일 경운동 사무실에서 차례 친선 바둑대회를 가졌다. 변정호 바둑회 위원장은 자비로 참가자들에게 기념품을 주었다.

바둑분과위는 참가인원 증가로 다음 대회부터 외부기원을 임대 사용키로 했다.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 ▲A조 = 최관원(1등), 정진선(2등), 권의철(3등)
- ▲B조 = 최남철(1등), 한 관(2등), 김광선(3등)
- ▲C조 = 鄭都承(1등), 최봉식(2등), 이중순(3등)

## 청송회 총회·임원연임



업무국·재원관리국 출신의 모임인 청송회(사진 최동호 회장)

는 5월21일 저녁 정기 총회를 갖고 현 임원을 전원 연임 시켰다. 운영위원은 임원회의에서 선임할 것도 위임했다.

## 출판·사이버위 매월 모임

미디어 스터디 그룹 출판 홍보분과위원회(위원장 한중광)와 사이버 분과위원회(위원장 이흥기)가 매월 정기 모임을 갖고 발전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출판홍보위는 매월 첫 수요일 낮 12시, 사이버위는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1시이다. 회의 장소는 여의도 KBS연구동의 사우회 세미나실.

# 콘텐츠 유통의 중심에 KBS미디어가 있습니다

유익하고 다양한 KBS콘텐츠를 국내외에 다양한 형태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 24시간 위성방송 해외 송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우리말 더빙 등을 통해 시청자들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 드립니다.

### 드라마



### 유아·교육



### 다큐멘터리·교양



### 음반·CD



### 歷史散策-②



#### 서기 한

서울의 청계천 개발계획은 도시개발상 세계에 유례가 드문 놀라운 청사진이다. 큰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여러 돌다리(石橋) 등 역사적 유물의 훼손 또는 변경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아쉬움을 갖고 있다. 6.25 전쟁전 청계천변은 가게와 노점상이 즐비한 도떼기시장 이었는데 수복후엔 더욱 번성하여 독특한 천변(川邊)풍경을 이루고 있었다. 군에서 제대한 나는 이따금 그곳을 어슬렁 거리면서 헌책이며 낡은 SP판을 싸게 사기도 했다.

이 시장이 차차 탈바꿈하면서 남쪽으로 밀려나 청계천7가의 고물 시장을 형성하여 장안의 명물이 됐지만 이번 개발계획으로 이마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계천 양쪽에 드문 드문 남아있던 옛 가옥들도 강그리 사라지게 되었다 (이미 많이 헐렸지만).

그 구옥들은 대개 엇비슷한 모양새였다. 길가를 따라 길쭉한 행랑채 혹은 바깥채가 있고 중간의 대문을 열

고 들어서면 걸 모양보다 번듯한 안마당과 안채가 마자 형으로 잘 꾸여져 있었다.

북촌의 양반집보다 훨씬 낮은 지붕이 마치 남의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다소곳하게 엮드려 있었다.

조선시대 그 언저리엔 주로 중인(中人)들이 살고 있었다. 중인하면 양반과 상민(常民)의 중간이란 뜻이어서 대개 하급관료, 기술관료 그리고 종로에 점포를 가진 비교적 부유한

상인들이 포함 돼 있었다. 여러 관청의 아전, 하급장교와 역관(譯官)의 관(醫官) 그리고 천문·지리 등, 요셋말로 전문직 등이었다.

기술자와 장인을 하대하는 풍습은 아직도 말끔히 가셔지지 않고 있는데 실상 청계천변의 중인들이야 말로 개화기의 개방론자이며 실용주의자인, 시대를 앞서 가는 사람들이었다. 또 이재(理財)에도 능해서 일제의 식민지가 된 후에도 상공업을 일으켜 성공한 사업가들이 적지 않았다.

역관, 의관중에도 당상관에 오른 사람이 간혹 있었지만 이건 예외에 속하는 일이었다. 특히 역관들은 중국 드나드는 사신(使臣)을 수행하여

이미 서구 문물의 세례를 받은 북경을 왕래하면서 중국어로 번역된 서구의 각종 서적을 밀수입하는 한편 무역을 해서 재산을 불리기도 했다. 이 밀수입된 책들이 실학과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됐고 또 천주교의 자생(自生)을 가져온데도 결정적인 구실을 했음은 잘 알려진 일이다.

갑신정변의 주모자들, 김옥균·박영효·서광범·홍영식 등 쟁쟁한 젊은 사대부들이 스승으로 삼긴 의원,

대치(大致) 유흥기(劉鴻基)의 집도 광고 근처에 있었다.

그는 동료 친지들이 수입한 서적들을 개화파 청년들에게 넘겨주고 자주 토론회를 가졌으며 당대의 진보적 재상이었던 박규수(朴堉壽), 당상역관 오경석(吳慶錫)등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개화운동을 벌였던 것이다. 이 모임에 가끔 동참했던 청년 가운데 승려인 이동인(李東仁)이 있었고 그는 김옥균의 밀명(密命)을 받아 일본에 밀항하여 정탐과 공작을 하기도 했다. 또 그들이 일본을 왕래하고 일본 정객들과 교류하는 자금도 중인들에 크게 의존했던 것이다.

그 무렵 양반 사대부들은 북촌과

남촌에 몰려 살았다. 북촌은 지금의 가회, 계, 화동, 남촌은 소공, 회현동 등 남산기슭인데 조선조 중기 이후 중간에 다소의 기복은 있었지만 노론이 장기 집권하고 특히 안동 김씨와 민씨 척신 정권 등이 계속되면서 북촌에 몰려 살았으므로 그 곳이 양반촌의 지명처럼 돼 버렸다.

갑신정변이 어이없이 실패 한데는 여러 원인이 지적되고 있지만 한마디로 미숙한 지식인 정치가들의 허술한 거사계획과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탓이었다. 정변후 유대치는 행방 불명이 됐고 후일담도 전혀 없으나 정변의 배후 인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20여년 전에 작고한 명필 위창(韋滄) 오세창(吳世昌)은 오경석의 아드님이다.

일전 세운상가에 들를 일이 있어 오랫동안 청계천변을 다녀 봤는데 나즈막한 지붕의 한옥들은 간데 없고 개천 준설공사가 한창이었다. 옛 중인계층의 고장이 사라지고 빌딩숲이 들어서게 되다보니 다소간의 감회가 없지 않았다.

지금도 기술자와 상인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말의 사회의식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구나 싶은 역사의 무서움을 느끼게 한다.

(필자는 본회 고문으로 소설가이며 KBS사장을 역임했고, 현재 예술원 회원임)

## 韓末, 中人の 꿈은 政變속에 묻히고 淸溪川邊의 어제와 오늘

KBS는 지금... KBS는 지금...

### 한국어 능력시험 실시 공채 연령제한 폐지

KBS는 국내 방송사 최초로 우리말과 글에 대한 올바른 사용능력과 종합적인 이해를 측정 평가하는 한국어 능력시험을 8월8일 실시하기로 했다. 응시대상은 KBS신입사원 공채시험응시자로 하며 공개채용에 한국어 능력시험 결과를

반영한다. 대졸 수준의 지식과 사고능력을 볼 수 있는 독창적인 문제로 80~100문항이 출제될 예정이다. 한편 KBS는 신입사원 공채 연령제한을 완전히 폐지했다.

### '밤을 잊은 그대에게' 40주년맞아 최장수기록

TV와 라디오를 통틀어 최장수 프로그램인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5월 9일 40주년을 맞았다. 1964년 5월9일 '라디오 서울'을 통해 첫 전파를 탄 이래 TBC, KBS 등 3번이나 바뀌었지만, 스스로의 이름은 40년을 한결같이 지켜오며 이뤄낸 기록이다.

### 2003년 우수부서시상

2003년도 부서 성과 평가 결과 우수상에 보도국, 중계기술국, 재원관리국, 춘천총국, 장려상에 라디오1국, 영상제작국, 시청자센터(홍보), 인적자원센터(연수), 대전총국이 각

각 선정, 5월 월례조회에서 시상 있었다.

### MC & 개그맨 키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예능MC 부족현상과 일부 톱클래스 MC들의 몸값 올리기에 대응해서 KBS가 직접 MC와 개그맨을 발굴기로 했다.

### 지역방송국 구조 조정요구

KBS는 사업실적이 부진한 16개 지역방송국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하라는 감사원의 경영실태 특별감사 결과를 받았다.

감사원은 KBS2TV의 광고 비중을 줄이고, 그에 따른 손실분은 수신료 인상으로 메꿀 것과 이 사·감사 임명방식을 바꾸고 외부 감독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 장애인, 방송에 대거기용

KBS는 장애인 방송연기자를 대거 기용했다. 제3라디오에서는 국내최초로 시각장애인 장현아(28)씨가 낭독프로그램 '사랑의 책방(오후 8시~)'에서 낭독코너를 맡았다. 골형성부전증의 윤선아(25)씨는 '윤선아의 노래 선물' 단

독MC, 장애인 가수 박마루씨는 퀴즈프로그램진행, 골형성부전증의 정재은씨는 리포터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제2라디오에서는 교통사고 장애인 강원래씨가 '강원래·노현희의 뮤직토크'를 진행중에 있다.



### 회보·홈페이지 원고 모집

매월 발간하는 회보와 항상 떠 있는 홈페이지에 실릴 회우 여러분의 원고를 환영합니다. ◆ 테마: 시사, 회고기록, 역사물, 시평, 논평, 제언, 수필, 기행문, 생활·가족이야기, 건강관련 체

합기, 희귀한 사진, 회원, 가족 등 정, 시, 폰트(연재물도 가능) ◆ 수량: 200자 원고지 5장 이내 또는 A4용지 1장 정도 ◆ 접수처: (우) 110-310 서울 종로구 경운동88 수운회관

### 홈페이지 이용방법

- 게시판투고나 회원정보 검색시 Login요령 : ID는 사번, 패스워드는 주민등록후반 7자리 숫자로 로그인 가능 (추후 변경가능)
- 조직도를 부분 클릭하면 인물이미지가 구현됨
- 회보나 사보검색시 좌상단 도구상자의 '확대경' 아이콘을 클릭하면 2~8배 확대가능
- 당분간 애경사 등 동정이나 게시판투고는 사우회 전화 (02-733-2189)·FAX (02-3210-1449)·e-메일 (cckbs2004@yahoo.co.kr)을 통해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전해주시면 게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 한글주소 'kbs사우회' 로도 검색 가능

709호 E-mail : cckbs2004@yahoo.co.kr 홈페이지 : www.kbssau.or.kr Fax : (02)3210-1449 ◆ 마감: 회보 - 매달 15일까지, 홈페이지 - 수시

### 회원여러분은 지금...

#### 동정

- ◆ 서병주회장 / 사우회 미디어 스테디그룹과 회원들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위해 방송관련도서 100여권을 사우회에 기증
- ◆ 김호영 / 조선일보(5/22)에 '너무 훼손된 공영방송' 제하의 칼럼 기고
- ◆ 김 현 (한국방송인동우회 부회장) / '성가정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천주교 화곡본동 성당 (4월29일)과 천주교 정하상 교육회관 (5월 8일)에서 특강
- ◆ 박용식 / 방송위원회의 방송발전기금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 박종길 (바둑아마5단) / 6월5일 오후 9시30분 '바둑TV'에 출연, 프로2단과 대국
- ◆ 송현식(재미방송협회 회장) / 5월1일자 '미주방송'지에 '미주방송인 여러분 우리모두의 뜻을 모을 때입니다' 권두언 게재
- ◆ 양휘부 (방송위상임위

- 원) / LA 한인방송신타조사(4월), 방송심의 규정 정비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청회 개최(5/19)
- ◆ 이상욱(KBS위성방송회장) / 미주 한국어여성방송 업무관계로 LA체류후 5월 중순 귀국
- ◆ 이일로 (한국방송제작기술협회 회장) / KO-BA2004 국제 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5/19~22)에서 홍보관 운영, 성대히 마침

#### 자녀결혼

- ◆ 강창남 / 딸 (4.17)
- ◆ 김동원 / 아들 (4.18)
- ◆ 나득용 / 딸 (4.24)
- ◆ 엄무용 / 딸 (4.25)
- ◆ 지정웅 / 딸 (4.25)
- ◆ 고수상 / 아들 (5. 1)
- ◆ 이용수 / 딸 (5. 2)
- ◆ 김병용 / 딸 (5. 2)
- ◆ 배석진 / 아들 (5. 8)
- ◆ 박제영 / 아들 (5. 8)
- ◆ 문명용 / 아들 (5. 9)
- ◆ 정도영 / 아들 (5.14)

- ◆ 김영세 / 아들 (5.15)
- ◆ 전인규 / 아들 (5.16)
- ◆ 박광춘 / 아들 (5.16)
- ◆ 박종길 / 아들 (5.16)
- ◆ 허영구 / 아들 (5.22)
- ◆ 유신박 / 아들 (5.22)
- ◆ 황봉구 / 아들 (5.28)
- ◆ 장태환 / 딸, 서울 팔레스토랑 1층 (6월 6일 낮 2시)

#### 고학

- ◆ 이종호 / (5. 7)

#### 학수

- ◆ 강완수 / (5.21)

#### 부음

- ◆ 박문호 / 모친상 (5. 8)

#### 주소변경

- ◆ 이병대 / 463-909, 경기 분당시 정자2동 한솔마을 LG②10-1201 (031-714-7667)

#### 가족동정

- ◆ 김은구 / 막내며느리 정지성, 서울신사동 호산병원 내과원장 취임
- ◆ 박인채 / 딸, 캐나다 밴쿠버 VCC대학 입학

### 신입회원환영합니다

- 김승열 / 701-032, 대구 동구 효목2동 291-5 삼부스위트빌 501호 (053-755-1443)
- 여용식 / 607-830, 부산 동래구 안락2동 455-1 3/5 진흥상가④ 403호 (051-523-8655)
- 유인화 / 423-718, 경기 광명시 철산1동 우성④ 107-301 (02-2687-4228, 011-756-4228)
- 황하주 / 612-778, 부산 해운대구 좌4동 1412 동부④ 101-203 (051-702-1291)
- 양휘부 / 135-120, 서울 강남구 신사동 52-24 코원빌딩 501 (방송위원:3219-5114, 544-9798, 011-9447-0034)
- 최평규 / 706-100, 대구 수성구 범물동 태성④106-1205 (053-214-8600, 017-504-6800)
- 정선언 / 135-795, 서울 강남구 역삼2동 개나리④ 34-1103 (567-5671, 016-572-5671, 프로덕션 해오름대표 : 786-4065)
- 민경원 / 133-771, 서울 성동구 응봉동 100 대림④ 6-104 (2294-2591, 011-660-2591)
- 김용문 / 561-16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우성④ 110-1405 (063-272-5233)
- 이광연 / 712-280, 경북 경산시 중산동 36-2 한라타운 110-509 (053-814-4463)
- 지용근 / 790-140,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648-1 (054-274-2726, 011-828-2726)
- 이민희 / 121-774, 서울 마포구 도화2동 우성④ 15-1302 (홍익대 홍보대학원교수: 320-3042, 703-7325)

(신입회원,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 회원별세

◎ 김창구 사우 / 5월15일 노환으로 별세. 향년 79세. 고인은 전주방송국장, 대구방송국장, 그리고 국립극장장, 한국음악협회 부이사장을 역임했다.



◎ 김만규 사우 / 5월17일 숙환으로 별세. 향년 76세. 고인은 KBS방송센터국장, 전주방송국장, 기획관리실장과 (사)한국평생교육원장 등을 역임하고 녹조훈장을 받았다.



### 친목회 순례

## 여맥회(汝脈會)

마포의 '이조' 식당. 오늘(5/18·화) 따라 왓자지껄. 이날은 더 많은 회원으로 붐빈다. KBS old boy들이 20여 평의 이 식당을 전세라도 낸 듯 짝 매운다 "요즘 어떻게 지냈소?" "나야 그냥 그렇지. 그런데 말야 자고 깨면 스트레스야. 그놈의 뉴스때문이지. 탄핵, 진보, 개혁 거기가 열 받게 하는 토론 프로 이런 것 아주 질렸어" 60년대부터 30여년간 방송 기자직으로 KBS 뉴스를 만들었던 주역들이고 대부분 90년대 후반에 퇴직한 보도본부 출신들이라서 싫던 좋던 뉴스에 대한 관심이 몸에 배었다. 여맥회가 생긴지는 7년이 된다. 1997년 봄 이석희, 정종진, 이 승, 장순재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여맥회 오찬모임

등 KBS퇴직 동료 모임이 시초였다. 이 당시엔 '만원 한 장' 씩의 모임이란 뜻으로 일매회(一枚會) 이름으로 출발했다. 서로 부담감을 없애고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였다. 그러다가 회원수가 늘어 남에 따라 일매회는 방송가를 상징하는 '여의도의 맥박'이 밖에서도 살아 움직인다는 뜻을 담아 汝脈會로 이름을 바꿨다. 이제는 회원수가 100여명에 달할 정도로 큰 모임이 됐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www.yeomaek.net)도 운영하고 있다. 아직도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끈질기게 운 좋은?) 회원이 자진해서 식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매회 정신을 살려 참석한 회원들은 만원씩을 꼬박 적립한다. 모은 돈을 경조사비용으로 써서 회원간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함이다.

여맥회 제3대 회장을 맡고 있는 한중광 회장은 "여맥회는 미력하나마 KBS발전에도 도움을 주고 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좋은 릴레이션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날 모임에는 박성범, 류근찬, 박찬숙, 이계진 등 17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초대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글 : 김선기 사우)

### 나의주장

가정(家庭)은 작은 집이요 국가(國家)는 큰 집이라는 의미로 똑같은 집가(家) 자를 쓴다고 생각할 때 가정이나 국가나 어른을 중심으로 뿔뿔 뭉치고 화목해야 든든한 가정, 힘있는 국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겠다.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힘이 있는 국가가 되는 길 밖에 없다. 조선을 침략 통치했던 일본은 여전히 강국으로 군림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최근 북한 핵 문제와 관련, 6자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오늘날 중국의 국제적 위상은 미국을 넘보고 있다. 그동안 영토와 관련해서 일본이 역사왜곡을 할때면 한국 못지않게 일본을 공격하고 질타했다.

중국이 오늘날 국력이 성장하면서 지금은 우리 고구려사(史)를 자국의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프로젝트까지 추진하고 있다.

국권을 상실했던 일제시대에는, 일본이 광개토태왕의 비문을 변조, 조작하더니 이번엔 중국이 북한 붕괴상황에 대비, 고구려 역사를 중국

의 세력 범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영토 주권 문제에 있어서 대만 편에 섰던 미국이 중국과 손을 잡고 대만을 양보하는 대신에,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을 중국이 묵인해 준다는 '묵계설'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 힘있는 국가 되는 길



박창학 사우(한국언론재단 전문위원)

이처럼 강대국들 사이에 또다시 한반도가 풍전등화 존망의 위기에 서있는데 여야는 아직 새 몸집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고, 대통령과 일부 언론사간의 대립은 날로 심화되고, 노조와 기업은 서로의 권익 싸움으로 날을 지내고 있으니 나라의 향방이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전쟁에서 전략의 제일 전제는 적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주변 열강들 중에 누군가가 이 나라를 분열 책동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국가가 있어야 대통령도 있고 여·야도 있는 것이지 나라가 망하고 나면 월남처럼 보트 피플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작은 물레방아도 물이 모아져야 돌릴 수 있듯이, 지금은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나라를 지키는 일이 그 어떤 것 보다 심각한 일임을 생각하자.



### 요즘 어떠세요?

#### 朴志淵(鉉兌)스님과 차 한잔 나누며

합장을 하면서 맞아 주는 志淵 스님의 얼굴이 함박웃음이다. 객(客)도 참으로 반가웠다.

빗 줄기가 제법 굵던 5월 12일 오전, 찾아간 白蓮寺 경내는 법당 준공을 앞둔 마무리 공사로 시끌시끌했고 마주 앉은 곳은 천막 집무실이었다.

손수 끊여주는 차 한잔을 고맙게 받아들고 속전속결, 사우회보의 (대담)속으로 모시고 들어갔다.

-손오공에 이끌려 천상의 부처님을 만난다는 두려움 같은걸 안고 왔는데 이렇게 보니 아니어서 마음이 놓입니다.

“비 오시는 절간에 개구리 소리가 좋습니다.”

이게 선문답(禪問答)이라는 것일까. 혹시 취재를 사양 하는건 아닌가.

-고승대덕(高僧大德)을 만나는 자세로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 왔습니다.

“하, 하, 하. 고승이요? 나는 초발심(初發心)일 뿐입니다. 고승이니 대덕이니는 나와는 관계없는 천만의외의 말씀입니다.”

#### 나의 출가는 커뮤니케이션의 계속

-거선(巨禪)들의 기록을 보면 出家할 때의 고뇌가 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志淵스님께서도 70에 출가를 결행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텐데 출가의 이유가 뭐 였습니까?

“내게 출가니 수도(修道)니 하는 것은 과분하기도 하고 결맞지 않습니다. 나는 커뮤니케이션 광장의 객 노릇을 계속하기위해 불가(佛家)에 입문 한 것입니다. 내가 걸어온

언론과 학교가 대화의 광장이었는데 절간은 더 깊고 넓은 큰 광장이기 때문에 찾아 온 것입니다.”

-당시 충격 일수밖에 없었던 스님의 행적이었는데 志淵스님께서서는 전생부터 불가와 인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글쎄요. 어머니가 나 어렸을때 불

白蓮寺 홈페이지를 곧 만들어 다른 종교들과도 함께하는 연구 광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처음 法名은 現峯

- 스님의 법명(法名)인 志淵은 아

## 極樂往生 돕는 일 “좋은 일 해야죠” “머리까지 깎을 줄은 나도 몰랐다”

공을 드리러 절에 가시는 걸 보았고 나도 대학 때부터 불교의도(道)에 관심이 있었죠. 몇 년 전부터는 염불 공부를 했



지만 머리까지 깎을 줄은 나도 몰랐지요. 염불은 리더를 법주(法主)라 하고 도우미를 <바라지>라 하는데 나는 바라지를 생각했었지요. 그렇게 염불을 하면서 사자(死者)의 극락왕생(極樂往生)을 돕는 좋은 일을 하려했습니다. 어쩌다보니 휘짝 바뀌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志淵스님의 하루 생활을 말해 줄 수 있습니까. 옛날 부터 책을 많이 보셨는데 공부는 어느 시간 입니까?

“특별한게 있나요. 새벽4시에 일어나서 2시간 쯤 예불을 올리고 경내의 쓰레기를 줍습니다. 아침7시에 공양(供養)을 하고 신도들과의 대화, 그리고 요즘은 법당 공사속에 묻혀 삽니다. 잠은 일찍 잡니다. 최근엔 공사 때문에 공부하는게 후 순위지만 시간이 없어 책을 못 본다라는 것은 안될 말이지요. 내 홈페이지 말고

호이기도 하지 않습니다.

“내 처음 법명은 現峯 이었습니다. 내가 順天 仙巖寺에서 수계(受戒)를 했는데 내 머리를 깎아 준 은사(恩師)

가 법명을 現峯이라 해서 총무원에 승인을 요청 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수계승보다 나이가 많아야 한다면서 이미 입적(入寂)하신 고승 한 분을 새 은사로 모시게 했고 이과정에서 법명도 내 아호였던 志淵으로 된 것입니다. 내 아호는 중학때 은사신 한학자 淵民 李家源 선생께서 지어 준 것이지요.” (스님의 아호 志淵의 내력은 그의 저서 '하이어나 저널리즘' P310에 자세하다)

#### 지금의 상황은 큰 변화가 오는 조짐

-요즘 정치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라.. 요즘 상생(相生)의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하는데 웬 새로운 말을 그렇게 만들어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관용과 협조가 원칙입니다. 민주주의 원리와 원칙을 그대로 해 나가면 됩니다.”

-지금을 난세(亂世)라고들 합니다. 난세에 슬기롭게 살아가는 지혜가 됩니까?

“지나친 염려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면 됩니다. 요즘의 상황은 큰 변화가 오려는 조짐입니다. 통일로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걱정들을 하는데... 핵(核)을 가지고 위협한다지만 그러다가는 제가 먼저 죽습니다. 어느날 자고 일어나면 ‘어!세상이 바뀌었네’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는 가공할만한 강력한 과학적인 힘이 작용하겠지요. 큰 지도자의 시대는 갔습니다. 군소 시대에는 시끄럽고 불안하게 되는걸 역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KBS 사장 시절에 즐겨쓰시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는 지금도 유효합니까?

“물론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화엄경(華嚴經)의 중심입니다.”

대담 4시간. “이제 물러 나겠습니다.”

白蓮寺 법당 준공식에서 가사장삼(袈裟長衫)의 주지 스님을 다시 뵈기로 하고 절간을 떠났다.

그리고 법당 준공식이 있던 5월 16일 행사에 바쁜 志淵스님을 다시 만났다.

바라 징 화소 북 소리의 화음이 장엄하고 요령과 목탁소리와 함께하는 염불이 또한 엄숙했다.

주지 임명장을 받은 소감을 물었다. 잔잔한 미소로 답을 대신한다. “명예가 또 하나 더 해 진것입니까” 이번엔 파안대소(破顏大笑)이다.

그 전에 만났을 때 스님에 관한 “명예도 다 버리고 출가..”라는 대목에 “나는 명예를 가장 존중하는데...”라고 했었다.

이날은 가사장삼의 위엄있는 朴志淵(鉉兌)주지스님 이었다.

(대담 김은구 / 사진 박춘병)  
대담의 더 자세한 내용은 사우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비평

### 가요무대(‘조명암 특집’)-②

#### 4월 19일 방송 이상흡연출

가요무대는 어떤 노래들을 시청자에게 들려 주어야 하는가. 18년을 보아오면서 한구석 채워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마침내 ‘조명암 특집’이 풀어 주었다.

일제 강점으로 울분이 쌓인 망국의 한을 달래주던 주옥같은 노래들을 작사가가 북쪽에 있다는 이유로 원곡대로 방송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가사를 바꾸고 작사자 이름도 달리해서 방송을 해왔는데 실로 50년만에 금지가 풀려서 원곡을 듣게 되었다.

조명암(本名 趙靈出)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동방의 태양을 쏘라’로 당선, 모던이즘에 민족주의를 결합한 시인이고 희곡작가이고 폭격있

는 가요시 작가이다.  
가요무대가 작사가 ‘유호편’을 방송한 바있는데, 북한에서 문화부부상(차관)을 지낸 조명암 특집을 기획한 것은

## 가요무대 18년의 빈곳을 채워준다



안평선 사우  
(한국방송인회 상임부회장)

획기적인 결단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지난해에 ‘조명암 시선집’ (편자 이동순)이 출판되어 영상과 인쇄매체가 재조명하는 분위기도 조성되었다.  
‘바다의 교향시’ 시작해서 총 15곡,

원로 작사가 반야월씨의 회고담, 따님부부의 준비과정, 가요평론가 윤익삼씨의 음악성 해설로 구성했다. 원가사에 3절까지 완창을 했는데 ‘선창’과

‘목포는 항구다’의 3절은 처음으로 들을 수 있었다.

가수선정이 대체로 걱정했는데 이혜리의 ‘서귀포 칠십리’는 동요조로 들렸고 김성애 ‘화류춘몽’은 곡해석이 적중했다. 곡목마다 발표연도를 자막 표시했으면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진주라 천리길’은 간주에 독백대사가 있는데 그것도 재연했더라면 완성품이 되었을 것이다.

광복 이전에 발표된 가요곡 중에서 가장 많이 불리우고 오랫동안 사랑받는 명 가요 3곡을 꼽으려면 틀림없이 ‘고향설’ (김다인/이봉룡/백년

설 1942)이 꼽힐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빠졌는지, 또 남인수가 불려서 발매수가 ‘해수의 소야곡’을 능가했다는 ‘꼬집힌 풋사랑’ (조명암/박시춘/남인수 1938)도 끝내 들을 수 없어서 서운했다.

‘낙화유수’ (이봉룡/남인수 1942)는 민족가요처럼 60여년을 불려오는 노래. 가수(강달남)가 1절에서 가사를 틀리게 불렀는데 마땅히 끊고 다시 불렀어야 했다. ‘이강산 낙화유수 흐르는 물에’ → ‘흐르는 봄에’ (자막도 틀리고)

가요쇼의 핵심은 악단의 연주이다. 가수가 신명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흥취를 촉발시켜 주는 것인데, 이점에 관해서 검토가 요망된다.

#### ◆ 바로 잡습니다

5월 1일자(제25호)에서 ‘푸른언덕’을 부른 가수 김백진은 김백희로 바로 잡습니다.